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8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8. 28(금) 14:00 ~ 18:47
- 장 소 : 화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진희 위 원
 이희경 위 원
 전고필 위 원
 정유란 위 원
 홍태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시간이 됐죠?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접속이 되셨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회의는 예술가의 집이 아닌 영상회의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치한 곳은 예술가의 집 위원회 회의실인데요. 어제 하루 종일 라인 리허설을 해본 결과 음성이 끊어지거나 하는 변수들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저희는 헤드셋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상회의를 통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285차 8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개의 의결안건과 13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정 안건을 처리한 후에는 문예지 <문학선> 관련 민원제기 및 답변 현황 보고 그리고 문화다양성 소위원회 구성 계획(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 12인 중에서 현재 10인이 참여하고 계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전차(前次) 회의결과는 회의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 유은선 위원

-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처음 하는 영상회의라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은선 위원님 같이 오디오가 안 들리거나 하면 즉시 말씀해 주시면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의 오디오에 문제가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오디오 시스템 체크)

○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283차 회의에는 총 7개의 의결안건 중에서 5건이 원안의결이 되었고요. 2020년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구성(안)과 2020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심의 결정의 건 등 2건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된 제 284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1건의 의결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전차(前次) 회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사항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4. 의 결 사 항

○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 2차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 건은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안건번호 제 839호 2020년 2차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대상 결정의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심의가 있었고 심의결과 총 12건의 지원사업이 선정되었고 지원액은 9,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무관객 생중계를 조건으로 지원해서 공연장 규모에 따라 정액으로 티켓료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지원이 됩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의 상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 여파로 냉각된 공연예술계의 공연 관람 수요를 확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연예술 분야 수요 증가에 맞춰서 공연실황 생중계 추진을 통한 미래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중계 결과물은 저희 아카이빙을 통해서 공연예술 특화 콘텐츠로 기록원에 수집되는 자료입니다.

지원대상은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 단체입니다. 뮤지컬을 포함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 필수조건은 생중계 회차 무관객 촬영이 가능한 공연 대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야외공연이나 1회만 진행되는 공연, 프레스콜 등은 공모 안내를 할 때 제외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4억 원이고 티켓료 보전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소공연장, 중공연장, 대공연장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지원신청 접수를 보시면 지원신청 기간은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14일간 진행이 되었고 신청건수는 총 107건이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건이 꽤 있어서 심의대상 건수는 총 86건이었습니다.

수도권·지역 지원신청 현황은 지역이 14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최소보장제 취지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최소보장제 취지를 설명하고 심의 때 가능한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의 지역심의 추진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무작위 추천 방법으로 심의위원 후보단 내에서 5배수의 필요인원을 구성한 후 섭외순위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순위대로 섭외에 들어갔습니다. 분야별 2인, 총 10인으로 구성이 되었고 통합심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보여드린 표와 같습니다. 비수도권 20%, 여성 60%, 신진 20%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심의회회는 8월 24일 월요일 2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의방법은 통합심의로 심의위원 간 사업에 대해 토론 후 독립하여 채점, 합산하여 선정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공연의 작품성, 아카이브의 타당성, 공연의 파급효과 등 3가지로 심의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원심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지원심의 결과의 분야별 지원결정 현황은 표와 같이 연극분야 7건, 무용분야 2건, 음악 1건, 전통 2건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심의대상 건수 86건 대비 13.95%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연장 규모별 지원결정 현황은 대공연장 1건, 중공연장 4건, 소공연장 7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지역 신청률 대비 선정률 현황은 지역신청 현황이 14건 있었고, 이 비율이 16.3%였는데요. 지금 총 수도권 10건, 지역 2건으로 결정되어서 16.7%의 비율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다음 주 수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고 선정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부터 지원심의결정 세부내역 리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 현재 공연 취소가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예비후보를 통상 10% 수준이 아니라 여유 있게 9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점수 80점 이상은 모두 예비후보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총 21번까지 예비후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2건의 사업 중에 1건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금 편취의혹으로, 그러니까 2019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편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청과 문체부에서 이 부분을 조사 중인데요.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동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결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안건번호 839호 2020년 2차 공연실태 생중계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그 선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안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 방식은 이미 현장에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보가 가능한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의결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 규정이나 보조금법을 확인했을 때 선정에서 제외를 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에서 제외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선정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결과가 나오면 추가 선정을.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니까 유보를 하는 것이죠.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그러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유보 후 결과가 나오면 지원대상으로 결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총 11건으로 선정 발표를 해야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 드러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전히 조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치를 가지고 뭘 결정내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희경 위원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것 이라면 일단 유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쪽의 판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무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묻는 것입니다. 실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무 쪽에서는 일단 발표를 했다가 사업시기 이전까지 조치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지원금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님은 그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유보를 했다가 결과가 확정되면 그때 결과를 발표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님 제가 맞게 설명한 것인가요?

○이희경 위원

-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요. 나머지 11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검토해야 할 것이 사업시기인데요. 사업이 모두 9월에 걸려있지 않나요?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 받았습니니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은 12월 16일입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1건을 유보로 해서 사업단체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 예정인 단체에는 별도의 공문을 통해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유보를 한다.” 라고 통지를 해 줘야 그쪽에서도 저희 것에 대비해서 증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때는 12건이 선정되었는데 1건은 유보가 되었다고 발표하고 유보된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통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하나만 더 정하면 됩니다. 최종 확정되는 날짜를 언제로 정하면 됩니까? 후보 사업자의 사업일정도 고려되어야 하잖아요?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예, 13번째 사업단체의 사업일정은 11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단체의 사업 개시일은 1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13번째 단체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면 10월 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10월 말까지 기다렸는데 이때까지 조치가 안 끝난다고 하면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그때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면.

○홍태립 위원

- 그런데 그 조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알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예, 알 수가 없습니다.

○홍태립 위원

- 내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예, 맞습니다.

○홍태립 위원

- 애매한데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하기가 그런데요.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시백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한을 너무 끌 수가 없어서 지급했는데 이후에 판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이 사업 같은 경우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관객을 조건으로 공연을 하고 영상촬영을 해서 티켓료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으면 그날 관객을 받아서 티켓료를 받았을 텐데요. 저희가 티켓료를 보전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지원금보다는 티켓료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생중계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이 결정되면 순식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종료된 이후에 환수를 시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시백 위원

- 법리적인 형식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편취라면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단체에게 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유보로 기안을 미루는 것은 동의하되 만약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조건부 지급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쪽에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쪽에서 책임지고 비용을 반납한다.” 아니면 그런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회경 위원

- 예, 그 사실을 알리고 보전을 안 받으면 자기들은 관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쪽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시백 위원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그러면 단체에게 통지하면서 10월 말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확정통지가 없으면 지원을 하되 만약 그 이후에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다음 순위의 후보자에게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나요?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예, 가능합니다. 10월 말까지면 일정상 가능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으니 의결을 위해서 성안을 해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11건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심의대로 지원확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1건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조치를 기다려보고 만일 10월 말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에게 이러한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반납할 것인지? 혹은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 단체가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후보 순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이시백 위원

- 예,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수정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결주문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머지 11건에 대한 지원확정 의결하고 문제가 된 1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조치를 기다려본다.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게 “추후 편취나 횡령이 확정되어 문제가 생길 때는 지원금을 반납한다.”라는 조건으로 사업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서 지원을 확정하고, 만일 그것을 받지 않았을 경우 후순위에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독교위원회

- 예, 맞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안은 조금 더듬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 839호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조건으로 수정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는 없으시고 모두 찬성하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반대가 없고 찬성의견을 내 주셨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저희도 위원회 회의실 인원을 10인 이하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건이 끝나면 다음 보고자가 들어오거나 제 3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보고자가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0-2021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아르코 총괄기획자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입니다.

이 건은 나주 본관에 있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저는 나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 840호 2020-2021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아르크 총괄기획자 공모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건을 결정했고 지원결정액은 3억 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9일 278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 아르크 총괄기획자 선정 공모계획을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9일 총괄기획자 공모 계획을 수립했고 7월 29일 접수결과를 보고 드리고 심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원신청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3주였습니다.

지원신청 대상은 필수요건과 선택요건1과 선택요건2로 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총 지원신청 건수는 8건이고 결정은 1건입니다.

지원심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추천도 있었고 저희 사무처에서도 안을 내서 지난 6월 11일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에 총괄 기획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외부전문가 4인과 사무처장님을 당연직으로 해서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은 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모셔서 1차 서면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7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3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8월 7일 예술가의 집에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를 통과한 3인에 대해서 발표기회를 드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하신 다음에 위원들께서 온라인 채점을 하셔서 최종 1인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심의 기준 및 가중치는 표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이런 기준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지원 결정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1인에 3억이었고 행정 결격 사항으로는 1건이 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제척·회피는 전지윤 위원께서 2번과 5번에 대해서 심의를 회피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월요일에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개별적으로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총괄기획자와 협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하고요. 상대측인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측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싱가포르 측은 총괄기획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평 역시도 별첨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지금 8명에 대한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분이 67년생입니다. 70년생 그리고 80년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 몇 분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70년생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선정되신 분도 40대겠네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이 분은 70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선 위원

- 의견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이 심의선정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혹시 보태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면접대상자들은 이미 기존에 싱가포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을 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국이 협력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존의 활동경력이나 기획 능력을 보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서도 객관적이고 대외적인 환경들이 너무 좋지 않은 형편에 국제교류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와 사무처 모두의 공통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황진수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모두 찬성해 주신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의결안건 2건을 잘 처리했습니다. 이제부터 보고사항으로 들어갈 텐데요, 보고사항이 꽤 많습니다. 10가지가 넘지만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보고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어느 분이 보고를 하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엄민영 부장이 보고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과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그리고 한국예술 창작아카데미 등은 모두 홍승욱 원장이 보고를 하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홍승욱 원장은 기다리셨다가 3가지 안건을 모아 한꺼번에 보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추진 계획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보고사항으로 소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와 TF활동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대응 TF 1·2차 회의 결과나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 등은 보고를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고사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추진(안)에 대해서 엄민영 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2020년 3차 추경 예산 신규사업인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월 3일 3차 추경안을 확정하였고 당일 문체부는 추경 3,399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에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 예산이 의결되면서 본 사업의 추진은 확정되었습니다. 예술위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7월 29일 완료하였고 문체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예술위는 17개 시·도광역재단과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광역재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국 단위로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추경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예술위는 광역 문화재단과 협력 추진을 위해 7월 3일 정부의 3차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에 광역문화재단에 사업추진 계획을 알리고 지역예술인의 창작지원을 위한 참여를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4차례 걸쳐 17개 재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술현장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돼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의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예술활동의 일상화에 대비하여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발표하거나 향유자와의 소통을 지원하는 활동이 있으며, 이를 통한 예술가와 단체들의 역량 강화가 목적입니다. 사업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하는 추경 사업이지만 성과보고회나 결과보고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업주관은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이며 예술위원회는 사업시행을 총괄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술가·단체이며 온라인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도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예술 활동에서 벗어나 예술가들 개인이 소유한 온

라인 채널을 통한 예술 작품의 발표입니다.

사업 체계도를 보시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을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예술위원회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구축된 콘텐츠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광역문화재단과 예술위 수행사업 등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광역문화재단에게 부여된 예산은 134억 3,000만 원으로 예술가 2,7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유형은 재단 및 지역별 상황에 맞춰 자율 수행하지만 저희들이 제시한 유형으로는 관객을 개발하거나 창작활동을 하거나 플랫폼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와 재단의 자율적인 기획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위는 14억 6,000만 원으로 표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148억 9,000만 원이고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122억 4,000만 원이며 광역문화재단과 예술위원회 통합관리비용이 2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단별 예산 배분은 3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인원, 인구 10만 명 당 문화예술활동건수, 재정 의존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720명에 대한 지원인원수와 총 운용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재단들의 사전 알림 및 합의를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사업을 시작해서 예술가의 활동은 12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성과공유회 그리고 내년 2월까지 결과보고를 마칠 예정으로 현재 지역별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빨리 시작한 곳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8월 13일 공고를 시작하였고요. 이 외에 울산과 인천은 9월 초에 공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9월 중에 끝나고 10월, 11월, 12월 등 3개월에 걸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온라인으로 채널이 있다는 것이 이 사업 맞죠? 발표 성과 공유가 끝나고 나서 계속 채널에 있는 것처럼 기획서에 있었는데 이 사업이 맞나요?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맞습니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링크를 해서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있나요?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네이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아닙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별도의 홈페이지에 플랫폼이 있고 동영상도 올라가 있는 사이트가 링크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그런 형태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사실 제작 지원 사업이잖아요? 제작 지원 사업인데 그 분들이 제작 발표를 했던 동영상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권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올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기간 동안에 이 동영상을 올려놓겠다는 등 명확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지원과 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지금 온라인 저작권 관련해서는 별도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가 가지고 오는 저작권은 전체적인 저작권이 아니라 비독점적인 이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단이 예술가와 예술가 단체에게 교부를 하는 시점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동의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만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제작비를 받았어도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의 공모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은 파일 형태로 저희한테 제공을 하는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요. 링크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삭제 하신다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겠지만, 개인 채널에 올라가 있는 한 저희 쪽에서 계속 링크 형태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자기 채널이라는 것은 유튜브 채널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개인의 유튜브나 SNS 등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올려놓은 링크를 가지고 와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에 링크를 넣어서 보여 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조건이 있다면 명확하게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링크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는 계속 놔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지가 나갈 때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무리 동의를 받은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저작권 범위에 있는 내용이라도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생기는 오해가 있으니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어떠한 제의입니다.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법인과 협의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창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더 촘촘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 부분은 저작권자뿐만 아니고, 이것이 만약 공연이면 초상권과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 공연에 대해서만 자신의 초상권에 대해서만 허락을 한 것이지 계속해서 그것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약 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확실하게 해서 사전에 공지가 나갈 때 밝혀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술인들과 합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그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원칙적으로 기금을 줬다고 해서 기금을 통해서

제작한 저작물이나 사용권에 대해서 합부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공지가 나갈 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알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죠.

○ **홍태림 위원**

- 저도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단 운영과 성과공유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 **홍태림 위원**

- 그런데 추진일정(안)을 보면 성과공유회가 2021년 1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모니터링단도 2021년 1월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평가를 시작하는 것인가요?

○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모니터링단이 2021년 1월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성이 돼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 **홍태림 위원**

- 그러면 모니터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따로 공모가 되나요? 대상은 누가 되나요?

○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주관처를 별도로 모으려고 합니다. 대상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수요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을 같이 포함해서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 **홍태림 위원**

- 그러면 모니터링단 활동과 관련된 것은 저희 통합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평론 등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평론이나 리뷰 단계보다는 콘텐츠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추진하신 성과에 대해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별도로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작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평가만 하신다는 것이죠?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맞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확산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업의 추진하는데 어려움 등이 추가로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코로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발표하는 장소가 온라인일 뿐이지 이루어지는 것은 현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영향은 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히려 재확산 후에 이 사업이 강력해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강성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이 사업이 설계되고 광역문화재단과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업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수도권 지역의 문화재단의 참여가 불투명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전체 17개 광역문화재단 모두를 협업의 영역 내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을 크게 벗어나서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부분은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없으신가요?

○강윤주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8월 13일 경남문화예술진흥콘텐츠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혹시 지원상황이나 어느 정도 현장에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었던 부분은 창작발표에 보면 단순공연이나 전시업무 촬영이 안 되고 온라인에 맞춰 기획·제작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재원일 것인데 이게 혹시 예술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거나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그런 우려는 처음부터 안고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 예술 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사업에 대해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접수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시작되는데 현재까지 몇 건이 들어왔는지는 저희한테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쪽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계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쪽은 저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저는 일종의 샘플처럼, 아니면 사업설명회에서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예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업에 부합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맞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아닌데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았습니다.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육컨설팅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예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초 6월부터 광역재단들에게 제공해 드린 자료에는 국내외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활동들의 사례를 모았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재단들한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공모 자료에 상세히 담지 못했던 이유는, 해당하는 예술가가 이번 공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이나 저희 같은 경우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단들이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업설명회에는 예술위도 같이 참여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강윤주 위원**

- 각 재단별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공모 자체에 대해서는 공고문으로 되지만 선정된 단체들을 모으고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적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컨설팅을 통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술가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교육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업이 추경으로 진행되다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을 맞출 수 없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더라도 병렬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위험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경사업 기한에 비해서 사업주체도 복잡하고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아르코 차원의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체에서 첫 번째로 통합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통합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도 적절하지 않고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운영은 내년으로 미루고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연계해서 통합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잘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다 버려질 것입니다. 아르코가 5억을 들어서 3개월 동안 예술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된다는 게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5억으로 디자인 설계 등을 하고 올해부터 비대면 등 공공플랫폼을 만드는 예산투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로 총 예산 130억의 10% 정도를 아르코가.....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모니터링과 연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이 8월 말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12월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처럼 모니터링이나 연구 관련된 것은 내년 2월이든 최대한 늦춰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시도하고 모든 광역에 뿌리는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벅찰 텐데요. 그것에 대해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연구를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130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축적될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의 연계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130억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만이 아니라 추경사업의 대부분 구조는 문체부가 수백억을 단기 공급하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임을 아르코가 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술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제법 많거든요. 이 사업은 공공미술과 똑같은 구조잖아요? 800억을 뿌리고 모니터링 등은 문체부의 담당관이 “아르코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문제가 되면 공동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나 사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더욱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임 부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전방위적입니다.

○엄민영 전략사업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의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콘텐츠에 있어서 저작권의 범위는 언제까지고 어떤 방법론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손쉽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례나 전례 중심으로 사업을 견인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혹은 “사전교육 시스템은 어떤가?”, “평가시스템은 적당한가?” 그리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 상식적인 수준의 대응은 어느 정도인가?” 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 예로 들면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 정확한 안이 없는 게 보고 상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원재 위원이 지적한 것은 총체적인 3차 추경사업의 실행방식에 있어서 예술위원회 차원의 집행체계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적절한 적용방법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방위적 문제 제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옳은 지적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적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공모사업이 시작되면 이미 문제가 다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8월 13일부터 시작하고 인천도 8월 4주에 공모기간이 완성된다고 하면 이미 날짜가 지정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주신 의견들을 어떻게 믹스해서 추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대부분 사업 설계 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전반적인 큰 틀의 목적은 다양한 활동들에게 직접적인 사업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의 온라인 장치에 대한 것으로 예술가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것을 담는 그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서 기존 플랫폼 사업을 하는 분들과의 협업체계나 협력체계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전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설계할 절대적인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고요. 저희가 사전 과정이 아닌 병행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부 추경사업에 대한 위원회 입장은 공공미술사업과 이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 기획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공공미술사업은 저희가 일부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관처도 아니고 주체도 아닌 형식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미디어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하며 내년도에 재설계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흐름은 보이거든요. 아르고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역만 보더라도 재단도 그냥 공모로 진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특별히 디자인하고 설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르고 입장에서는 29페이지 2번에 있는 통합온라인 플랫폼 구축 5억 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 사업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뿌리는 것 자체에 대해 동의는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잘 되어서 “있는 플랫폼과 협력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5억 원을 마중물로 쓰고요, 비대면과 관련된 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사업형 플랫폼만 만들어지고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논의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요. 이원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른바 플랫폼이라도 튼튼하게 설계하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술위 입장에서는 확실히 남는 일에 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도 걸리기는 한데요. 지금 전략사업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저로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지금 박경주 위원님부터 이원재 위원님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을 앞두고 저작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서 미리 법률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표준 계약 모델을 만들어서 각 재단에 일단 보내주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컨설팅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플랫폼 문제에 대해서는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 팀이나 관련 부서에 인력들을 배치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성과를 관리하는 측면과 그것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 측면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도 10월부터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준비작업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이 국고사업으로 5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호전이 돼서 대면회의가 가능하다면 즉시 대면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계속해서 온라인 회의에서라도 자주 소통하면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행과정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접수를 받아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회의인데 스피드는 대면회의에 비해서 늦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피로도에는 대면회의에 비해서 훨씬 더 집중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네요. 불가피하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보고사항을 이어갈 텐데요. 2020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모니터링·평가 수행단체 선정심의 결과보고, 2020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과보고,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 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 결과보고 등 3개를 묶어서 홍승욱 원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2020년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모니터링·평가 수행단체 선정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저희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 결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지난 달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도에 선정된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에 해당하는 196개 처의 참여인력 283명에 대한 전체 사업의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1억 1,00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20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7일간 공모를 진행했고요. 공모접수 현황은 2건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2020년 8월 6일 진행되었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된 바와 같이 5인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방식은 1차 서류심사 그리고 2차 PT/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보시면 단체의 수행능력, 평가체계의 타당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등 3가지 기준을 통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한국정보경영평가(주)’가 선정되었고요. 결정액은 1억 1,272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원신청 했던 2개 단체는 방금 결정된 단체와 ‘문화리서치 피오’ 등 2개 단체였고요. 지금 현재 ‘한국정보경영평가(주)’ 이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어서 계속 보고를 하세요.

○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20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달에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사업실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전환 및 전문인력으로 경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과거 3개년 이내(2017-2019년)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을 2020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월 임금의 50%를 하반기 6개월간 월 상한액 100만 원 기준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방법은 정규직 전환 사실에 대한 적격/부적격 심사를 하는데 이 사업은 서류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전체 지원규모는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일간 해당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현황으로는 총 42개 단체 269,314,930원의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7월 30일날 진행이 되었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문화일반 3인, 노무전문가 2인으로 구성해서 해당 사업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심의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심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채용이 확인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 및 단체의 사업 수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규직 전환여부, 근로계약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 실적 등 심의지표와 심사서류 내용 등은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확인증 등 급여에 대한 증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결과보고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에서 결격처리 단체가 박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8개 단체가 결격이 되었는데 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일단 심의회의 결과의 심의기준으로 3가지로 나뉘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계약서나 관련 서류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가 명확하며 근로계약 사항이 적정한 부분은 일단 선정에서 '가'로 평가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시점이나 계약서 세부 조항 등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이러한 내용들을 노무전문가와 함께 해당 단체에 이런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권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정 내역은 '가' 17개, '조건부' 15개, '부' 10개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선정 단체의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8일간 진행한 결과 '조건부'로 결정된 15개 단체 중에서 14개처가 조건부를 승인했고 1개처는 지원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 결과는 총 31개 단체에 38명이 선정되었고 지원금액은 2억 67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진행일정으로는 9월부터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보고를 한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경 위원

- '조건부지원'의 대부분 이유가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경신'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교부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맞습니다.

○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2년 있다가 혹시라도 해임 등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리가 되나요?

○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 현재 연수단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단체에서..... 계약서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부분들이 문화예술단체들이 노무와 관련된 계약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권고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약서 정도를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사업 심사과정이 있다고 하면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써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전에 해 왔던 사업에서 사후 모니터링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저희가 실패와 관련한 부분 등을 알 수는 없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지속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단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 등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끔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무전문가를 배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 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 결과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에는 잘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상에 표준계약서(안) 이라서 보류가 된 단체들을 보면 꽤 많은 단체가 있지만 거기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계약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문화예술 사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규직 전환사업은 일반 사업장에 어울리기는 하는데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사실 일자리 사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한다면 다른 형태도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박경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예술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해지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국가가 일정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3개의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이 있고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0만 원 수준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포상적 성격인 ‘정규직 전환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완화된 조건들을 맞추고 예술단체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제출할 서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소화 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상자를 넓히려는 생각이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고자 합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고요. 노동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노동부에서는 오랫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지원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노동부 자체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 사업장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주40시간 근로와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은 누적된 질문이고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예술 인력사업에서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업에서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형태의 사업장에서 어울리는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계속 해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체들이 과연 정규직을 전환할 능력이 될 만큼 자본의 역력이 있는지는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검사하시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 현재 재무제표까지는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증빙서류들을 받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수입과 지출이 나올 것이고 최근 3년간 누적된.....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주식회사 등은 자본잠식인 상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근로자가 몇 명이고 현재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살펴보고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그것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문화예술기관에게 맞는 사업인지? 저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예요. 사회적 기업이나 문화예술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근로계약서나 정규직 전환과는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문예위 사업에서라도 제대로 검토해서 내년에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이 사업의 특성은 문화예술 분야의 고유성도 관련되지만 사실은 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전환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단체나 기업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운영상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보다 연수단원을 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됨으로써 권리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리는 문제라서요. 사실 고민은 필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더 큰 차원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되지만 이 사업은 일정한 조건 속에서 전환에 따른 자기책임을 저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설계를 완전히 재설계하지 않는 한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왕 논의가 되는 것이니까 쟁점을 뽑아서 논의를 완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의 이야기대로 이 사업에는 접근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님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옳으냐?” 예컨대 재무제표를 보냐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제대로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떤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3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사무처장이 이야기한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들어내고 앞에 있는 2가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박경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그런데 해당 사업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고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 수혜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일정정도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특히 문화예술을 전공한 졸업생들이 연수단원 과정을 거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일정정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경주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사업들 안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규모적인 면에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 정도의 지적을 받으면서 이 사업의 정당성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희경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것도 같은데요. 몇 년 후에 고용상태가 제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점검과 검토도 없는 사업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근본적인 질의가 있잖아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 예술위원회 경영평가 안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 자체에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지표에서 빼거나 변경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는데 설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이회경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과도 연결되는 것 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지원금이 안 나오면 자연 사직을 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술위원회에만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청년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대부분 유사하거든요. 우리는 문화예술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현장에 맞도록 다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이 사업은 당초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연수단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회나 결산심사 등에서 “연수단원으로 그냥 끝나는 사업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연수단원 사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면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래서 연수단원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전환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수단원으로만 끝내고 그 사람들에게 대한 관리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반면에 이 제도를 통해서 연수단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획자가 어떤 예술단체를 튼튼하게 견제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반드시 수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제도를 통해서 고용 효과를 만들어낸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모든 경우가 양질의 결과물이 되도록 관리도 잘 되고 추후에 추적관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추후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경력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22년도 부터는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설계하고 디자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 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이 건도 지난주에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던 건입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가운데 aPD 분야에 대한 중간발표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주요 안건은 최종 지원발표에 대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지원신청 접수결과가 처음 선정했을 때는 기획 분야가 32건이 신청 접수가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총 5인이 선정돼서 3월에 교부 받고 사업들을 수행중입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중간발표 지원심의를 했고 중간발표는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조사연구 실행 결과 및 최종발표에 계획을 PT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에 PT심사가 진행되었고요. 이 심의에 대한 심의위원님들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경우 전담심의위원. 이미 1차 때 위촉되신 심의위원님들께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65쪽 하단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담심의위원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담심의위원 명단은 기획 분야에 5인이 선정되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류심의는 전수검토를 통해서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발표심의는 8월 18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제척 및 회피 현황은 1건도 없었습니다.

지원심의 결과에서 지원심의 결정액은 총 4,9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총 신청액은 5,500만 원이었는데 심의나 평가내용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금액은 4,9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최종발표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67페이지부터 있는 붙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3건에 대해서 접수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 사업(공연장 대관료지원,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진 현황 보고와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이종국 공연기반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7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기를 위해서 70페이지에 요약할 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공연기반부에서 코로나19 피해관련 긴급지원 사업을 총 3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었던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신규사업 외에 기존에 10여 년째 지원하고 있었던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과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발발이후에 기존의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해서 사업 제목만 똑같고 사업모델을 다시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개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기조로는 신청은 기존보다 간소하게 그리고 집행이나 정산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은 3월에 28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추가로 40억 5,000만 원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반영되어 총 50억의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40억이 추가되면서 총 60억 규모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관처를 선정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교부신청과 정산 단계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특히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음악, 무용, 전통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건수가 많은데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e나라도움에 가입하고 교부신청하는 단계가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소극장협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 저희가 심사 종료 후에 근무일 기준으로 3일 만에 이상이 없는 건들은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코로나 대책사업 중에 가장 집행이 빨리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원현황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30건으로 1차, 2차 대비 대폭 늘어났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원신청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저희가 지역재단을 비롯해서 소극장협회가 갖고 있는 각종 지부에 대대적인 홍보를 요청했고 그런 효과로 이 사업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연한 사업에 대해서 대관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기 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별로 지원신청률이 회차를 거치면서 늘어나고 있고 처음 15%에 그쳤던 수도권의 지원신청비율이 현재 19%까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용과 전통분야는 10건이 되지 않았는데 해당분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창작뮤지컬이라든지 500석 이하의 소규모 공연으로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오페라의 유령'처럼 해외팀이 그대로 와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뮤지컬뿐만 아니라 대극장 공연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선정비용이 작년에는 예술성 심사를 통해서 73%인 반면에 올해는 거의 10%가 상승한 8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접근성 심사에서 계속 떨어진 경우는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미등록 공연장이나 본인이 직접 소유한 공연장에서 본인의 공연을 지원한다는 등 해당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3차 공모접수가 마감돼서 심사가 진행 중이고 무용과 전통 분야는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지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남은 것으로 4차 공모가 남았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6월에 공연예술 분야 각 장르별 위원님 주관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연장 대관료라는 것에 대해서 장르별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정책연구실’이라는 오픈 폴리시랩 모델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을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게. 그래서 4차 공모 전인 9월과 10월에 의견수렴회를 대대적으로 갖고 11월에 공고를 내고 12월에 접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특이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은 산자부 산하인데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이 문체부에서 국고를 직접 지원받아서 소극장 시설 개선사업들을 2005년부터 운영해 오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266개 소극장들이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별도로 받지 않고 계획서로만 긴급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산을 하지 않는 파격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입찰 준비 중인데요. 전수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계획대비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공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00만 원 자체만으로 공연장 운영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에 대한 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을 거라는 전체하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266개 중에 241개로 90%에 육박하는 선정률을 보이면서 “일단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존에는 등록공연장만으로 한정하다보니까..... 요즘은 장르별 특성화 극장보다는 복합문화공간 형태에서 자유롭게 벌어지는 형태의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파악했고요. 대신 등록 공연장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 11개소가 8월 말까지 신규 등록 공연장으로 전환하면서 출연자거나 무대 스태프들에게 최소한 공연법에 의거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심의할 때 가장 큰 특이점은 17개 광역문화재단에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운영하거나 계획이 있는 재단의 간부급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과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파악했던 것이 17개 광역재단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자체 시도의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특별 대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과의 협력형 심의구조를 통해서 사업 간의 중복지원이라든지 차별화 방안 또 보완할 수 있는 지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런 효과들을 각 재단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8월 31일에 공고를 낼 예정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28개를 뽑았던 사업 외에도 서울문화재단, 대구, 부산 등에서도 각자 소공연장들을 해당 지역소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사업의 특징이 공간운영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건비나 경상비, 대관료, 건물임차료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하라는 지원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호응이 컸던 것은 일단 인건비, 경상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국의 소극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경상비에 대한 지원이다.”, “공간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지원이 하반기에 있어도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지탱하기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하반기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을 전제로 프로그램지원까지 해서 총 50%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현재 재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것으로 문체부와 오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17개 재단과 의견수렴을 마치고 있고요. 각 지역재단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재단에서는 임대료로 5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단위의 지원금 통해서, 특히 민간 소극장에 대한 폐쇄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총괄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예술성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서 기존 사업 대비 심사기준 등의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 등을 허투루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누락되는 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을 짰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고 보니까 2개의 것을 한꺼번에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님이 3시 27분에 회의에 참여 하셨습니다.

○이진희 위원

-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애당초 회의를 시작할 때에 비해서 1인이 더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신 것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정유란 위원

- 질의는 없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절차 간소화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주 위원

-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해 주시고 계속 보완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2건에 대한 보고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간단하게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추진 계획 보고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면 어떠한 제안을 했는데 짧게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이 사업은 체육기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로예술인이 대우를 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작년 사업이 올해 6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7월 말에 수도권에서 2019년도에 참여하셨던 장르별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에서 상징적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각 광역문화재단에서도 총 7개가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대도시 중에서 광주만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고필 위원님과 함께 광주문화재단에 압력도 넣고 내년엔 이런 사업을 하라는 형태의 의견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호남권에서 전고필 위원님 주관으로 해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지역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꼭 연극협회가 주관해서라기보다는 연극 쪽에서 발의가 돼서 진행되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연극 분야가 절반 이상 참여를 하셨고 수도권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2차례 현장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그동안 주관처를 별도로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앞서 보고를 드린 코로나 긴급지원사업과 다르게 주관처 선정에만 수개월이 걸리면서 매년 사업들이 그 다음해 여름에 끝나게 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관처 선정을 별도로 했을 때도 3~4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소 행정적인 업무의 부담은 되더라도 위원회 담당부서인 공연기반부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요. 대신 아무래도 주 고객 대상층이 원로예술인이니까 하다못해 NCAS나 e나라도움의 정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신청부터 정산에 대한 업무지원까지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로예술인에 대해서도 현재 만 60세에 대한 기준이 각 지역에서는 대부분 65세나 70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만 60세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르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통합심의를 통해서 균형적인 예산배분까지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일정은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문체부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래의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방금 보고를 받으신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보고순서를 조금 바꿔서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에 비가 계속 썩니다. 올 여름에는 유례없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극장이 지어진지가 40년이 훨씬 넘는 형편이라서 올해 누수가 심해서 고비를 많이 넘었는데요. 저희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마땅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 누수와 관련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도 열었는데 그 경과와 개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장님 계신가요?

○정순민 아르코예술극장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정순민 극장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순민 아르코예술극장장

- 일단 내용은 세부적으로 뒤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부의 조적전문가, 방수전문가, 구조안전전문가 등 극장 관계자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논의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대공간과 서비스 공간이 있는데요. 무대에서는 심각한 누수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서 저희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1시간 동안 시설을 같이 돌아보고 2시간동안 원인과 해결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외벽에 대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는 현재로써는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벽돌 시설 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니까 40년 전보다 강수량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강수량에서 보면 불가피한 누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여섯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외부 벽돌의 줄눈에 대해 재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벽돌 건물들이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하면 하는 조치라고 하는데 저희 극장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지라고 하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한 누수를 전면적으로 보수·보강해야 하고 일정 부분은 벽돌을 다시 쌓아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바닥방수를 재시공해야 하는데 이것도 최근 5년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방수로 우레탄도 보강하고 방수터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처럼 옥상 배수구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과 옥상의 벽면을 파라넷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씌우는 두겹대를 현재보다 탄탄하게 설치하는 것. 그리고 아르코대극장 옥상에 스튜디오 ‘다락’이라고 연습공간을 조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연습공간을 조성하면서 화단 및 데크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데크를 다시 뜯고 방수공사를 진행한 후 다시 화단을 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공사 중심인데 내부에 들어오는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 누수 유도방수 물받이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며칠 동안 비가 왔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규모와 기간, 예산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팀이 와서 몇 시간동안 측량을 하고 작업 장소 등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지만 쉽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태풍 때문에 2011년도 아르코소극장 쪽의 벽을 다시 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보험 처리를 했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그때 공사하신 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얼마 정도가 들어가겠느냐?” 라고 문의했더니 전반적으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공사기간과 예산은 9월 중에 한 팀씩 모셔서 5개 부분의 전체적인 검사를 받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측정되어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미술관은 최혜주 미술관운영부장이 대기 중인가요?

○최혜주 아르코미술관운영부장

- 예,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같이 보고를 해 주시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혜주 아르코미술관운영부장

- 방금 극장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미술관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도 옥상에 많은 금이 간 부분이 있고 천장 안에 배수관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벽의 벽돌 줄눈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옥상도 저희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금이 간 부분을 메우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누수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시장의 입구 부분이라든지 회의실, 천장, 외벽 등 여러 군데에서 비가 많이 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견적을 같이 받아보고 있는데요. 외벽에 전면적인 방수가 필요하고 옥상의 방수공사가 필요하며 극장과 마찬가지로 벽돌의 메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아르코미술관은 올해 벽돌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강공사는 메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벽돌이 노후화 돼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핀을 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줄눈 작업, 옥상, 벽면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견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저희 회의자료의 뒤편에 보면 2021년도 예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6쪽을 보시면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6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액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20년에 보수공사와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2020년에 관련된 노후 장비가 교체 된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장마를 거치면서 그동안 폭탄 돌리기 하듯이 적체된 문제들이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미 2021년 예산에 대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당장 내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년에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하면 2022년도 예산을 짤 때 계속 문제를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수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는 김에 지하 1층에 있는 수장고를 살펴봤는데요. 누수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술관 쪽을 보면 지하 1층에 전기실도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수장고가 있는 지하 1층에도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하 1층의 수장고는 되게 조심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덮어놓고 갔을 때 수장고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감사 쪽에서 미술관 관련해서 개선주의 요구를 하면서 수장품 관련해서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 개선주의 요구가 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는 작품이 500여 점이 넘어가는데 저희 수장고에는 235점이 있고 내·외부에 나간 것이 162점입니다. 그런데 내·외부에 들어가 있는 작품의 3분의 1만 미술관으로 들어오더라도 놓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장률이 이미 100%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예술자료원 쪽에 있는 수장고도 제가 알기로는 100%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같이 만들어야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십시오.

○이희경 위원

- 홍태림 위원님 지적에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사업 안전을 처리하느라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극장과 미술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수장고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공극장이고 공공미술관이니 준공된 지 40년쯤 되었으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국립극장이나 다른 시설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따진다면 마땅히 대규모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이것은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수장고에서 작품을 관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는 안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국회 등에서 따로 예산을 받아들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해마다 시도를 하는데요. 해마다 누수가 있었고 해마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해마다 공연장과 미술관에 관련된 보수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이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예산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한 말씀을 보태면 미술관 지하에 각종 냉방과 난방 장비가 들어가 있는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비상대기 체제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시 중이었는데 작품이 비에 맞을 정도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의 경우는 무대와 객석을 연결하는 지점에 누수의 양이 줄줄 새는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텝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다행히 음향시설을 개보수 하는 중이라서 오케스트라피트 위에 비닐을 덮어 놓고 기본적인 대응 장치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태에서 누수가 너무 대규모로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고를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극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끝내 확보하지 못한 예산 타령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부터라도 지금 있는 실상들을 문체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협의하고 그를 통해서 보수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급하게 이 문제를 공유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방법을 찾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극장장, 미술관장과 협의하고 보고할 것이 있다면 즉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면서 미술관 그리고 극장의 누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근원적으로 수장고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임시라도 조치가 가능한 방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드리면 수장고에 소장된 미술작품들을 공공기관이나 사설 기업에 대여하고 실비로 수익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당연히 관리 책임은 대여를 받는 쪽에서 책임져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장고 공간을 확보할 때까지는 공공기관에 좋은 작품들을 대여해서 많은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님 의견대로 미술뱅크 등을 활용해서 작품을 공유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장고를 넓히는 방법 외에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실 뉴서울골프장에도 저희 작품이 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대응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전수 조사를 통해서 작품 상태 등을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누수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수장고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최근 미술관이 감사 쪽에서 개선주의 요구를 받은 것을 보면 소장품 관련한 관리운영규정이 미비해서 이것에 대해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해서 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무처에서 하시면 되나요?

○박종관 위원장

- 큰 틀로 지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의결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는 것은 위원회에서 만들지 않고 제규정 개폐관련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황 조사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모아서 관련된 규정이나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저도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미술관 안에 인력이 적잖아요? 그런데 보통 소장품을 갖고 있으려면 소장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가 있나요?

○박종관 위원장

- 최혜주 부장님 답변을 하세요.

○최혜주 아르코미술관운영부장

- 현재 저희 미술관 인력 자체가 수장고를 별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시설담당자가 수장고와 소장품을 같이 관리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위해서 소장품에 대해서는 큐레이터들에게 업무를 재분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수장고를 관리하고 소장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큐레이터들이 같이 분장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통 소장품을 가지려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가 와서 이 정도의 상태라면 앞으로는..... 물론 인력이 추가되면 인건비의 문제가 있고 운영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소장품이 있는 한에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고요. 이번에 누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즉시 대답을 할 수 있으시면 최혜주 부장이 대답을 하시죠.

○최혜주 아르코미술관운영부장

- 이것은 저희 미술관 쪽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부분이고요. 박경주 위원님과 홍태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장품뿐만 아니라 저희 미술관에 테크니션이 없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도 전기실이나 기관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장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그리고 전시나 전시장을 테크니션 쪽으로 관리해 주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예술위원회 전체 인력 상황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 누수 개선방안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분류해서 묶으면 소위원회 활동 및 TF 활동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문예기금 정부안 편성 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는 시차 순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난 순서대로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순서대로 보고를 받으면 될까요?

○이희경 위원

- 소위원회 보고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위원회 회의 때 예술요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기로 했던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예, 맞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다음 회의 때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 홍승욱 원장의 얘기를 들겠습니다. 홍승욱 원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술요원들이 소집해제라고 하나요? 해제가 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위원장의 몫으로 이런저런 것에 대한 의미를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예술을 위한 좋은 환경에 대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가진 기념품을 만들자는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회의 때 했던 약속들을 이번 위원회에서 지키지 못한 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회차에 예술요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요. 10월부터 진행되는 개정된 시행령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예술요원에 대한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완결되는 대로 준비가 되면 다음 달에는 반드시 예술요원 제도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회경 위원

- 예, 오늘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보고가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회경 위원

- 다음 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3시쯤에 한번 휴식을 하고 휴식 없이 1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회경 위원

-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쉬셔야 하면 정책소위 보고를 하고 쉬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책소위나 꼭 필요한 것들은 보고를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101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소위는 1차 회의를 잘 했고요. 소위가 구성돼서 8월 20일에 모였습니다. 그날 두 분만 못 오셨는데요. 성지수 위원과 김상철 위원이 못 왔고 김상철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 선임이 힘들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토론해서 추천을 해서 받거나 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본적으로 소위의 운영현황이나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특히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라든지 사업혁신TF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했고요. 앞으로 소위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1차 정책개혁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소위의 역할로 합의했고요. 그것을 역산출해서 당분간 격주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그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제발굴이나 지금 다루어야 할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다루는 의제 발굴 워크숍을 다음 회의 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락을 드렸을 텐데요. 사무처나 소위의 위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저희가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요. 의제 발굴에 대해 제안해 주실 게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다음 회의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의견이 없으시면 정책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받고요. 지금 4시 35분인 것 같은데 충분히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부장이 먼저 보고를 하시고 부족하면 강운주 위원님께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참석해서 최근 문학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예지 이슈나 문예지 편집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문예지발간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문학지원부가 갖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관점에서 문예지발간지원사업 개선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예지 현장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분야 베니스비엔날레 분석방향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사업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문예지발간지원사업 개선방안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예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문예지가 문단과 출판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지를 시작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의 없이 문예지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문예지 편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위원들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패턴이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성평등 관련 규약과 행동강령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현장에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예지발간지원 평가체계 관련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취소가 되었는데요. 세 번째로 당초에 예정되었던 문예지 현장 전문가 심층 인터뷰 진행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나왔던 이유도 저희가 계량적인 수치로만 바라봤을 때 잡힐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문예지 여성 편집위원 심층 인터뷰를 5인 정도 모시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관점에서 일단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시각예술분야 베니스비엔날레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방향도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소위원회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예술감독의 성별에 따라서 실제로 워킹 그룹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술감독을 공모했던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시각예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양성 평등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적 이해를 수반한 심층연구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의 참여인력에 대해서 실제 미대 졸업생 비율과 시각 예술인 비율을 고려할 때는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아직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원래 11일에 모이기로 했었는데 이때도 연기가 되었고요. 당초 25일에 많은 인원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일단은 24일 월요일에 불가피하게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눠서 9월 8일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때는 화상회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여성 위원님들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조금 더 뚜렷하게 실질적으로 예술위 지원사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는 것이 2기의 생각입니다. 지금 “문예지와 시각예술분야가 뜬금없이 같이 논의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둘 다 지원사업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고치자. 그래서 지원 자체가 성평등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는데 있어서 문구 자체를 바꾸는 구체성을 띄우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각 장르별로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아서 내년이나 내후년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의 솔루션도 내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소위를 운영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외부 위원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식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계산하거나 이진희 위원과 제가 나눠 내는 식의 논의가 회의에서 진행된다는 자체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소위에 대한 예산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하나도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고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어쩔 수 없이 점심에 걸리거나 저녁에 걸리는데 그분들한테 “자비를 내서 식사를 하세요.” 라는 말은 못 하고요.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아마 오늘 소위원회 기본계획(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죠. 그런 일은 개선하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9년 예산중에서 기관운영비를 일부 복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2020년도 소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보고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상태 같으면 9월 초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화상으로 진행될 확률도 높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부 위원을 모시고 하려던 회의를 미루고 다른 테마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죠. 그렇게 회의 대응을 해야 할 문제죠. 그것이 워낙 내용이 있고 규모가 있는 회의였잖아요.

○강윤주 위원

- 예, 민감한 부분이죠.

○박종관 위원장

- 대면이 가능한 국면으로 호전되어야 하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1주나 2주를 그렇게 내다보기가 다소 암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윤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TF 1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104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대응 TF가 보고안건으로 보고된 이후에 8월 13일에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 코로나TF는 외부위원이 안 계십니다. 정유란 위원님이 팀장이시고 이원재 위원님, 유은선 위원님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정책혁신부를 포함해서 정책연구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외부전문가로 조형준 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실장과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을 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시설 특히 공연장의 매뉴얼 가이드 관련해서 자문을 듣기 위해서 모셨던 것입니다. 논의내용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 19대응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연구팀에서는 예술지원분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저희 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논의의 실증적인 근거를 위해서 인식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정책 대응체계 및 매뉴얼 가이드 수립 관련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전문가 2인을 모셔서 말씀을 나눈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원재 위원님이 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사례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발언 요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문화관광연구원 유사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차별성을 뒀서 이것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기관별로 반복적으로 피해조사 사례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설문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잡아서 현장에 메시지를 줄 때 활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 초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인식 상황에서는 외부전문가인 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실장이 와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지침과 함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부분에서 답답해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할 때는 지금처럼 2단계가 아니라 1단계에서는 시설별로 다양하게 운영의 편차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서 답답하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장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9월 중에 긴급재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아직까지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부재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데 뭔가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술위에서 그런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예술위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는 메시지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회의에서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극장운영부의 정영순 부장을 모시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극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왔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취합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현장에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제안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관리지침 정도에 대한 지원자격 조건이나 모니터링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모범적으로 지침을 준수하는 곳에는 지원을 늘리는 당근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2의 메시지 전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지정좌석제 권고나 공연장에서 환호성을 지르지 말라고 하든지 어떤 환기기준이나 확진자 발생 시 대응지침 등 몇 가지만 주어져도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외부전문가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사각지대 지원으로써 예술인지원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8월 25일 10시로 되어 있었고 이때 논의하기로 했던 것은 설문조사 문항 초안이나 예술위에서 극장시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 정영순 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거리두기 단계로 격상된 단계인데 외부위원이 없고 단지 우리 위원님들 3인만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예술가의 집과 나주 본관 그리고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에 진행을 했고요. 정유란 위원님, 유은선 위원님께서는 예술가의 집으로 오셨고요. 이원재 위원님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정영순 부장과 정책혁신부에서 2인이 했으며 나주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4인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식조사 계획안이 발전된 내용으로 논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외 공연·전시분야 가이드 조사를 심층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장운영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문 설계 안에서는 주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 예술인들 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술가 관점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제3자의 관점의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 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관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관객 쪽에서 봤을 때 예술의 사회적 가치나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다고 했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예술지원의 확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예술인 대상 조사항목에서 몇 가지 나온 이원재 위원님의 말씀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이야기는 9월 4일까지 내부적으로 설문초안을 완성해서 최종 검토를 한번 진행하기로 했고 만약에 대면 논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수렴 할 예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연 및 전시분야 가이드 국내외 현황조사결과는 저희 정책 연구팀에서 한하경 대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방역관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정영순 부장님이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문을 닫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별로 상황도 많이 달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7개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갖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공공이나 민간공연장, 전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뿌려도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0월 28일에 예술포럼의 중간 결과발표 단계로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현장에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된 관계로 인해서 10월 말 예술포럼을 기다리지 않고 그 전이라도 코로나19 대응 TF차원에서 현장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공론화 자리가 필요하다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및 소통구조에 대해서는 정유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뭔가 단계가 격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간 논의가 전무하고 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 메시지를 기관장 연석회의를 추진해서 이에 대한 논의를 문체부 쪽에 전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타로는 예술계 재난지원금 또는 개인지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긴급재난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9월 10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TF 1차와 2차 회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정유란 위원님이 보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유란 위원

- 일단 회의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대응TF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예위 입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께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드렸고요. 회의 때 나온 부

분들입니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부분과 현장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다시 논의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9월 10일에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오전 11시에 정유란 코로나19대응TF 위원장님과 사무처장과 저 그리고 정창호 부장이 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는데요. 공유하는 차원에서 사무처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오늘 정유란 위원님과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했고요. 내용들은 정유란 위원님 보고나 정창호 부장님 보고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도 총력 대응을 한다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 지속할 가능성이 커서 현장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것을 상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런 차원의 얘기와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운 지원이라든지 현장의 요구에 맞는 지원체계 같은 것으로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에 따라서 내부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해서 다음 주에 코로나 TF와 다시 얘기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에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신문에 실릴 정도로 피해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추가 지원제도는 쫓아오는 게 없거든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신문에 실리는 정도인데 이것을 넘어서는 직접 지원의 방법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립된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 소통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간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면 더욱 좋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술인의 든든한 버팀목과 친구의 역할을 해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과연 어떤 최소한의 소통체계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10개의 사업들과 3개의 국비 사업을 포함해서 이것이 새로운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맞이해서 새롭게 세팅이 되어야 하거나 대응체계가 추가로 대응되어야 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정책 점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창호 부장의 보고가 있었지만, 공연장 특히 아르코 대·소극장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중단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관통해 오면서 극장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온 전례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생긴 매뉴얼 대응 같은 것들을..... 물론 극장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 극장으로 확산할 방법은 있는가와

관련된 4가지 이야기를 급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체부와의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통로를 열기 위해 다음 주쯤 문체부 정책관 이상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방법을 급히 달라는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 즉석에서 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월요일에 저희가 주간경영회의를 통해서 일단 결론을 내린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회 전체와 공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코로나19대응TF 위원들과는 공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는 예술정책관을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본 골격이 잡히고 위원회와 공유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만나서 논의한 내용들을 소략해서 보고해 드렸는데 혹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실 게 있다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희경 위원

- 일단 TF를 너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서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은 문체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주도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안 파악 등은 저희의 예산이나 저희의 인력을 가지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제안하는 형태로 문체부에 그 일을 하게 추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 렉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이희경 위원

-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안들, 예를 들어 설문조사나 현황파악 특히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가능하다면 하는데 이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사실 문체부에도 공유가 되어야 하는 자료라고 한다면 문체부가 그 일을 맡아서 그 인력과 그 예산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치 확산을 할 때 설문조사를 정말 해 보고 싶었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조사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우리 내부를 벗어나서 넓은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논의를 해 보고 나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희가 5월부터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문체부와 계속 만나고 싶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정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음 주라도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다행이고요. 만나고 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이 논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십시오.
정 위원님, 이 정도로 보고를 했는데 오류가 없었나요?

○정유란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화요일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저희가 주간경영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화요일에 정책관 이상과 즉시 만나 협의 하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2020년 소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죠? 어려운 보고사항이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위원회의 기본계획 안에서 소위원회 운영보고를 같이 했었는데 소위원회가 각각 의결을 받는 관계로 개별적으로 의결을 받았지만 세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소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을 마지막에 하게 되었다는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기 소위원회 명단은 크게 3개 소위원회가 있고 내부는 자료와 같고 외부는 총 18인입니다.
그런데 정책혁신 소위원회 내에 비상설 TF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업혁신 TF나 코로나19 TF는 개별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보고안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같이 넣지를 않았습니다.
운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 소위원회가 회의수당 및 교통보전수당/일반수용비가 6,200만 원 정도가 되고 업무추진비가 2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비상설 TF는 5,300만 원이고 회의진행비 및 간담회비가 235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설 소위원회 3개 비상설 TF 2개에 예비로 1개를 남겨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붙임자료1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0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었고 5개의 신규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했었고 이것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민간위원을 총 61명 위촉했고 2018년도에 비해서 논의활성화 부분 차원에서는 102회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대폭 확대가 되었다는 부분, 참여가 활성화 되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소위원회 분과 확대에 따라서 약간 역할의 미션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 문제가 생겼고 운영의 편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10개의 소위원회를 기계적 할당에 따라 10개의 부서에서 담당함에 따라 소위원회 운영방식과 성과관리의 편차가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가 많아지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사무처, 소위원회, 위원회 간의 소통의 환류 부분이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보고안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위원회 전체회의 운영을 하면서 소위원회 보고안건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살피기에는 회의시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2020년도 소위원회 운영계획은 이런 점을 반영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소위원회 개편 부분이 있고 현장과의 점점 확대 및 정책제언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소위원회 성과 공유 확산 및 환류체계를 강화하겠다는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일하는 소위원회를 지향하면서 상설과 비상설 TF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설 소위원회 3개 비상설 TF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개방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공개모집과 내부 추천방식을 병행했습니다.

사실 6기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위원들이 추천되었다면 내부 추천방식에서도 사무처의 의견을 같이 물어가면서 내부 추천방식을 함께 참여했다는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과의 점점 확대 및 정책제언 기능 강화입니다.

상설 3개 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례회의를 월 2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위원 위촉이나 외부 공론화 부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술생태계의 중장기 발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점에서 준비회의 때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성과 공유 확산 및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서 소통체계를 일원화시킨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기계적 할당에 따라서 부서가 운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소위원회 전담 총괄 부서를 정책혁신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소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 역할에서 나온 얘기를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서 정책화 하고 전체위원회 회의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3개 상설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이번에 운영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채널 확산이나 백서 제작은 소위원회별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같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회의수당은 기본적으로 15만 원이고 기타 교통보전비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증빙 시 실비 지급이 원칙이고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서 교통보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비는 회의진행비 1인당 5,000원으로 사무처 직원을 포함시켰고 간담회비는 2만 원 기준으로 연간 2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위원회 예산만 따로 봤을 때는 6,200만 원으로 정리되어 있고 285만 원도 회의진행비나 간담회비를 통해서 배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입니다.

먼저 밑의 합계를 보시면 약 1억 2,000만 원으로 앞서 보고를 드린 수치와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소통 소위원회, 정책혁신 소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그리고 TF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 12인으로 해서 각각 8회로 잡았습니다. 8회씩 잡았는데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사례비, 외부전문가 사례비는 똑같이 적용이 되었고요. 행사, 발간비 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2,300만 원, 정책혁신 소위원회 1,900만 원, 성평등 소위원회 1,900만 원, 코로나대응 TF 1,400만 원, 사업혁신 TF 2,6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인원수에 따라서 회의진행비가 계산되어 있고요. 횟수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간담회비를 배정 받은 예산 내에서 정리를 해 보니 일단 2회 정도로 잡고 사무처 직원 3인을 추가해서 2만 원을 곱해서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했을 때 108만 원이고요. 정책혁신 소위원회는 92만 원,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와 코로나 TF 85만 원, 사업혁신 TF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추가 소위원회 또는 TF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여분이 생겼고 사업추진비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50만 원을 합쳐서 1억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집행이 지연될 경우도 있습니다. 성평등 소위 같은 경우에는 3회분 예산이 사업비나 거마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짜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2 자료는 소위원회 명단과 임기이기 때문에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나 더 받아야 하죠? 사업혁신 TF 보고가 남아 있죠. 그것은 류재수 부장이 하시나요? 보고를 해 주시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150쪽 8월 사업혁신 TF 활동 보고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1차 분과회의를 추진했었습니다.

1차 분과회의 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분과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의 분야별 공통사항으로 TF 운영의 목적과 추진 일정에서 현재 창작지원 사업이 10여 년 이상 계속된 체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해 보고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재설계를 해서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지정되는 재교부성 사업들은 어떻게 하면 역할분담을 통해 합리화를 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논의를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개선 이슈들을 정리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에 문체부와 워크숍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사업과 문예기금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2022년도 1월부터 중기재정계획이 시작 되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문학 분야와 시각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 다원예술 분야의 주요 논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요약된 자료 외에 각 분야별 회의자료와 회의 상세 자료들을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각 위원님들 간 소통을 통해서 타 장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나눠 주시면 보다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주요 논의 결과는 유인물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정부안이 지난 주 금요일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안 편성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020년도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62억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정부내부수입에는 관광기금 500억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관광기금의 여건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억이 빠지다보니까 538억이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가게 되면 2020년도 전체 사업비가 2,677억이었는데요. 2,946억으로 약 10% 정도 되는 26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비는 약 7,800만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권기금 전출금은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해서 28억이 증액되어 78억 정도로 반영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그래서 지출 주요 증감 내역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년대비 사업비가 올라간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시각예술창작산실인데 시각예술분야는 타 장르대비 수탁사업도 적고 볼륨이 적었는데 창작산실에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미술관도 2억 1,000만 원이 정부안 최종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창작육성은 일부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이 중에는 8월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재교부되는 사업들 중에서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술경영지원센터 인건비로 해서 문예기금 사업비에서는 이동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내년도에 4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 부분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예술교류지원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국회 지정 행사 사업이 감액되어서 8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이 27억 정도가 증액된 47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예술가지원의 경우는 동일합니다.

기초예술다양성증진은 10억 원 정도 반영이 돼서 다양성증진사업은 내년도에 5억 정도의 볼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5쪽 인력육성사업을 보시면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이 일자리 이슈 때문에 49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예술인력교육프로그램 사업이 1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기록물수집·개방·활용이 7억 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예술인복지재단에 재교부 되는 사업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관광자원화는 한도 내에서 자체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향유지원을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이 27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금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고 대상 인원도 177만 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227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문연에서 추진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은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56쪽의 기금운영비는 큰 변동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장과 미술관 등 우리 시설에 대한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중기 로드맵과 같은 계획을 짜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장, 미술관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복권기금 전입금이 총 사업대비 230억 정도가 기재부 평가단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과정에서 다시 증액 편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체부, 기재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2021년도 예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류가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추경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국가의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내년도에 굉장히 큰 감액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지금 보고를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초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은 수입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문예진흥기금 조성기금 등을 목표에 맞게 늘리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다는 면에서 다소 안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현장의 예술인들에게 알려주고요. 문예진흥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술의 최후의 버팀목이니까 어려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하는 소식을 빨리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미술관 운영 경비가 세부적으로 안 보여서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미술관은 아르코미술관기획전시 비용과 인사미술공간 기획전시 비용이 계속 부족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전시 비용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가 증액된 것인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2억 1,000만 원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표에 나와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미술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품 보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제로는 미술관 40주년이 먼저 왔거든요. 그때 일부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보수를 위한 보수비용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비가 새는 미술관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국가가 운영하는 미술관이 그래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작품 보존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함께 신경 써 주시죠.

○박경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모든 보고사항을 접수할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는 논의사항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다양성 소위원회 구성계획(안)이 있는데요. 박경주 위원님, 이시백 위원님께서 제안자고 동의를 이원재 위원님, 정유란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박경주 위원님이 하시면 되겠죠?

○박경주 위원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다양성 소위원회를 다원예술의 시즌2로 생각해서 기획을 해 봤고요. 최종안을 쓰기 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생각을 전하는 뜻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은 부분을 반영했고요. 이시백 위원님께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제가 임용되고 나서부터 문화다양성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저런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주민예술가지원정책과 관련된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도 다원예술분야 사업에 대한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원예술 사업이 멈춘 상태에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때와 지금은 예술계 안에서 다원예술이라고 부르는 형태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사무처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원예술 축제와 관련된 대표자들을 몇 분 뽑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의견을 들으면서 다원예술이라는 게 지금은 오히려 기초예술의 여러 분야들을 장르구분하지 말고 기초예술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비주류 장르들을 다원예술이 떠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원예술 1차 회의를 할 때도 첨부되었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다원예술 관련해서 새로운 시즌2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애초에 하고 싶었던 일이 문화다양성과 소수자 문화예술 지원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을 다원예술 안에서 떠안으면서 기초예술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주류 예술들, 또 새로 나온 문학이라든가 새로운 예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술들을 포함해서 고민하는 새로운 다원예술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 소위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다원예술 시즌2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지페스티벌 대표님과 통화를 길게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프린지페스티벌이 블랙리스트와 얽혀 있던 사연도 있고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신 게 다원예술에서 분야가 없어지면서 피해를 입었던 예술가들이나 축제의 당사자들에게 문예위 차원에서 뭔가 제스처를 취해 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다양성 소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원예술 사업이 없어지고 나서 있었던 과정 안에서 과연 다원예술가들은 안녕하신지도 살피고 그 분들에게 다원예술의 새로운 방향도 의논드리고 기초예술 중에서 비주류에 속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는 새로운 예술들 또는 기초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예술분야를 새로운 다원예술 시즌2에 넣어서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화부에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올해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올해 초에 알게 돼서 제가 5월 말쯤에 문화부 쪽의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만드는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확인도 했었습니다. 문화다양성위원회가 문화부에 생기는데요. 제가 밑에 주석으로 단 것을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10년에 문화다양성협약에 비준을 했는데요. 비준을 하면 바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가 만들어졌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만들어지고 있다가 그게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문화부가 올해 10월까지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문화다양성위원회 안에는 민간에서 문화다양성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관급 등의 구성으로 해서 민간에서 참여할 기회가 없는 구성이라는 것을 자료를 보고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안에 다원예술이라는 기초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이 창작지원 사업으로 있고, 국고로 들어오는 문화다양성주간 사업과 무지개다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 향유 사업이거든요. 창작 지원과 향유 지원의 파트를 문화다양성 소위원회에서 지원정책 등을 연구하고요. 국고사업인 문화다양성주간 사업이나 무지개다리 사업도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로 사업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요. 올해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설치가 되어도 사업은 그대로라는 말을 담당자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화다양성 소위원회에서 향유 지원으로써의 문화다양성 사업의 국고사업 부분도 가능하다면 정책 방향 등도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안을 꾸려봤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제가 나주 워크숍을 준비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다양성과 장애, 이주 등 소수자를 위한 예술지원에 대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TF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주민지원 정책개발 TF'라고 가안으로 잡은 것은 TF를 하려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방향성을 잡으려고 했었고 그때 바로 TF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간담회를 진행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이 부분의 얘기가 좁혀서 보기는 많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다원예술 분과 1차 회의를 하면서 더 많이 소위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본 포용국가의 정책과제 연구>라는 연구를 이동연 교수님께서 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최근에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기존에 있었던 다문화나 이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해서 젠더나 인종의 개념은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폭넓은 다양성 개념으로써 포용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원예술 분야의 시즌2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안을 짜 봤고 정 부장님도 그동안 있었던 것을 정리해 주셔서 수월하게 작성을 했고 위원님들께 제가 생각하는 구성안의 1차 안을 보내드렸고 동의를 얻는 내용으로 해서 토론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기획조정부에 미리 여쭙았는데요. 저도 이것은 5인 이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사안이 굉장히 광범위하므로 강 위원님이 하시는 것처럼 단계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분야와 관련된 분을 한번에 모셔서 듣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제안하고 다른 것을 하는 식으로 하고요. 소위원회 구성은 최소 3인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서 움직이는 소위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신 너무 광범위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을 짜서 외부 민간위원을 모시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진희 위원님께서 어제 연락을 주셨는데요. 소위가 꾸러지면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짜봤습니다.

검토사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생태계의 비주류 문화예술지원과 다양성 개념을 포함한 다양성 증진을 위한 개념을 확장해 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문예위의 사업추진방향, 문예위 안에 있는 다원예술 사업과 비주류 문화예술분야 등 예술계 생태계 다양성을 위한 창작지원과 국고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과 문화다양성주간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면담을 진행했고요. 자료는 다 받아서 공부하는 한 상태인데요. 지금 무지개다리 사업이 내년부터 이미 지원했던 곳에 3년씩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재단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문화다양성위원회가 문화부 직속으로 생기는데 거기에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20억 이라는 예산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기존 무지개다리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내년부터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가 꾸러지면 꼭 개선안을 마련해서 어떤 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시즌2에 맞춰서 그런 발전 방안 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추진 경과 검토 등은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봤고요. 향후 다원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 개선방안 논의는 사업혁신 TF에 있는 내용과 연계시켜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동 제안자인 이시백 위원님도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이시백 위원

-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인종이나 여러 비주류 창작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문화예술의 지평이 탈 장르화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비주류 장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함께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축약하면 문화다양성 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죠.

○이희경 위원

-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다리다가는 나중에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요.

○박경주 위원

- 예.

○이희경 위원

- 저는 지금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우리 예술위원회가 모든 사업의 조직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 전반에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박경주 위원님이 이것을 상설 소위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실 때 ‘다원예술 시즌2’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다양성 소위와 다원예술 시즌2는 결이 되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문화다양성이라는 가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직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 이것은 정책 소위에서 의제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이 뭔지?”, “우리 사업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폭넓은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예술의 다양화 측면에서 다원예술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사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원예술 시즌2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박경주 위원님과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제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원예술에 대해서는 현장 소위에서도 다원예술을 보강하기 위해서 박경주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사업혁신 TF에도 다원예술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작 단계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다양성 문제는 정책 소위원회에서 풀어나고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는 현장과의 결합을 만들어 가고요.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사업혁신 TF에서 만들어 가는 거죠. 어차피 모두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상설 소위를 만들어야지 지금 제출하신 의견으로는 도대체 이 소위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화다양성과 다원예술을 혼재해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개념 정리부터 정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쨌거나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TF도 굴러가고 정책 소위원회도 한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도를 해 보시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나 현장에서 다뤄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나 의제가 만들어지고 정리가 되면 TF가 끝난 다음에 상설 소위를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급하기 때문에 TF를 통해서 빨리 빨리 이런 일들을 실행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위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당장 구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가 목표로 해야 할 의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상설 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설 소위원회가 3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워크숍 TF를 했잖아요? 워크숍 TF를 거쳤고 거기에서 상설 소위원회와 비상설 소위원회를 나누기로 했고 상설 소위원회는 어떤 것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논의되었어요. 그 상설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선 논의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논의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안하시는 과정상의 문제 제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선 위원

-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박경주 위원님과 카톡을 나누면서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예전에 성평등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상설로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성평등 소위원회나 문화다양이나, 애초에는 이주민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초예술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뭐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정책 소위원회나 사업혁신 TF에서 부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박경주 위원님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왜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저는 TF도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상설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인이 꼭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요. 저는 예술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와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인가?” 사실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로 들어와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내가 밖에서 하고 싶었던 것을 갖고 들어와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왜 이렇게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인가? 실제 현장에서 예술가들은 문화다양성, 다원 등은 기초예술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모두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이것이 더 급하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TF 조차도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주 위원

- 혹시 제 화면이 공유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어떤 화면을 말씀하세요?

○박경주 위원

- 제가 보여드릴 자료가 하나 있어서요.

○박종관 위원장

-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희경 위원

-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문제 등을 떠나서 조금 전에 소위 구성에 대한 예산편성을 봤잖아요?
저는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비록 3개밖에 없지만 3개가
타이트하게 굴러가는 소위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 당연히 사무처의 서포터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혁신 TF도 벌써 부서가 시각예술, 문학, 공연예술 등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저희 조직의 모든 인력과 예산이 다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들은 “어떤 일을 하면 될까?” 라고 고민해서 자료들을 많이
연구했구요. 문화비전2030이나 새예술정책, 아르코비전2030을 제가 오기 전에 다 읽
어 봤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다원예술분야로 들어왔잖아요. 예술위에 오게 되면 다원
예술 분야를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들어온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가 여기에 들어올 때 새예술정책이나 문화비전2030, 아르코비전2030에 문화
다양성이나 다원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 제안서에 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문예위에서 소위나 정책을 위한
연구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원예술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다는 맥락을 읽어주시면 좋
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반이 아닙니다. 다원예술 담당자입니다.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세요?

○이희경 위원

- 제가 음악담당자인데 지난 소위에서 한국예술공론화와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를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 소위원회와 현장 소위원회와 TF에서 일단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꼭 상설 소위원회를 만들어야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궁금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다양성도 2030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 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장 소위원회에서도 다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들어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TF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일단 시도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상설 소위원회로 문화다양성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라는 설득이 될 것 같아요.

○박경주 위원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듣기는 하지만 저도 여기에 올 때는 다윈예술로 뭘 하고 싶은지..... 왜냐하면 유은선 위원님은 전통예술 책임자로 들어오셨고 저는 다윈예술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다윈예술이 어떻게 가야할지를.

○유은선 위원

- 박 위원님 잠시만요. 저도 곧 이동을 해야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통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전통에 뭘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위원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상설로 올리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본인은 직무수행계획서에 쓰신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다 관찰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통이나 여기에 들어오신 위원님 모두가 계획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회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동을 해야 해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면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논의 때 “소위원회를 심플하게 가자.”, “대신 압축적으로 하되 열심히 일하는 방식으로 하자.”, “사무처가 하중을 받지 말게 하자.”, “사무처와 협심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경량화 시키고 최소화 시켜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머지 현안들은 TF를 통해서 가자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소위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온 코로나19 TF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시대적 소명이라든지 예술가들의 당면한 현실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다양성에 관한 부분은, 물론 새문화정책에서도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되었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들의 사업 안에서 충분히 용해되어 있고 늘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예요. 일단 절차상의 문제부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논의했던 방향들을 새로운 판으로 흐르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아까 소위원회의 운영안을 봤을 때 소위원회의 운영비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른 위원회를 또 붙인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다른 위원회를 축소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에 관한 부분을 내가 책임지고 들어왔다면 저 같은 경우 지역문화정책을 가지고 왔는데 모든 TF에도 안 들어가고 소위원회에도 안 들어가는 저 같은 경우 직무방기와 똑같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정말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경량화 시켜서 사업혁신 TF나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TF로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태림 위원

- 저는 박경주 위원님이 올려주셨을 때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 박경주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아코혁신 TF를 할 때 사업혁신 분야 중에 예술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원예술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아코비전 2030에서도 6대 전략과제 안에 다원예술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30때 보면 2021년에 10억을 확보하고 2026년에 24억, 2030년에 50억을 확보해 나간다고 했는데요. 아까 예산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억이 책정되어 굴러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원예술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잘 해나가야 하는 미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에 대해 공감을 했던 부분은, 상설 소위원회가 3개가 있지만 정책 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한 달에 2번씩 만나기는 하지만 한 달에 2번을 만난다고 해서 정책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이주나 문화다양성 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정책 소위원회가 과부하가 걸리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박경주 위원님이 만드신 소위원회를 가동시켜보고 사업혁신 TF와 맞물려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의를 하는 의견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봤는데요. 저희가 추가 소위원회 및 TF로 남아 있는 게 1,25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250만 원은 문화다양성이나 이주민 이슈 외에 어떤 이슈로 TF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소위원회에서 할애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유동적으로 예산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하고 동의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니 예산이 많이 빠빠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 소위원회나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풀어나가고 여기에서 안 되면 내년도에 이 논의를 세팅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이주민 관련해서는 제가 박경주 위원님한테 지난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이슈가 공론화 되고 저희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1호 안건으로 해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소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해서 거기에서 하실 수도 있던 일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많으니까 이 이슈도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같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정유란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 중에서는 말씀을 다 하신 건가요? 차라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위원장이 되게 힘듭니다.

위원장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적인 욕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관심사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위

원님께서 “문학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박경주 위원님 말씀은 다윈에 대한 소명감, 사명감, 애정이 다 느껴지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내가 전문가인데.”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나는 이 분야를 대표하는데”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도대체 다윈을 어떻게 한 사람이 대표해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위원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이게 1차적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사무처도 통솔하고 관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처 전체가 소위가 구성되었을 때 실무를 담당해야 하고 소위를 뒷받침해야 하며 사무처가 일종의 여러 가지 일들을 뒷받침해서 소위원회를 끌고 나가야 하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특히 다윈 같은 경우에는 부서도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시각예술부 쪽에 다윈예술을 맡겨 놓았는데 담당자는 최근에 아파서 실무 등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무처의 뻘한 사정에 대해서도 저는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위원회와 TF 구성은 오늘 당장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7기 위원들이 임명되어 오시자마자 이미 논의를 하여 이렇게 구성하자고 합의하고 그 구성에 대한 세부 안을 오늘 보고하는 시점에서 “이런 소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도가 중심에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혹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라고 위원님이 임의 의지를 실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야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런 점이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위원회와 TF구성안은 11월 달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11월까지의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장예술계에 어떻게 힘을 실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논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예술 안에서 소외 극복 문제는 장르 간 소외 문제가 있다면 지역 간 소외 문제가 있고 세대 간 소외 문제가 있고 성에 있어서 젠더 감수성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과 성과 연령과 관련해서는 우선해서 대응하자는 합의가 일단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만약에 장르 불균형이나 장르별 의제도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보자면 다윈 뿐 아니라 문학도 필요하고 이들의 시각도 필요하고, 공연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장르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은 장르 문제만큼은 미래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보고 대응하고 설계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경주 위원님도 이런 큰 틀에 같이 동의를 해 주시고 11월 이후에 다시 세팅할 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흥태림 위원님도 그렇거든요. 다윈의 경우는 지원 사업에서 없어졌다가 어렵게 복원을 하게 되는 소외 장르이니까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우선해서 반영해 주겠다고 하고 우선해서 논의하고 우선해서 결론을 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도..... 박경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다윈예술 시즌2로 얘기를 하시지만 축약해보면 결국 2021년에 예산이 신설되거나 복원되는 아동청소년 5억, 다윈 5억의 지원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귀결되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고 효율적으로 써서 다윈예술을 부양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도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다원예술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에 박경주 위원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 나중이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쭙어보려 하는데요. 말씀 중에 “문화비전 2030을 다 읽어보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문화비전 2030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누군가가 “저는 그것을 쓴 사람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박경주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관심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다원예술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읽었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 개인적인 관심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와 문화비전2030이나 새예술정책, 아르코비전2030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봤고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본 게 이것이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아,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는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정책들이니 앞으로 또 논의해야 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이런 것도 정말 걱정이네요. “위원님께 상처로 남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정말 걱정됩니다.

○박경주 위원

-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청하고 제안하는 것은 여태까지 제가 이 회의에서 제대로 될 논의한 적이 없다고 느꼈어요. 보세요. 지금도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저는 이런 회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쳤고 할 수 있는 양을 해서 두 번으로 나누면 좋겠어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논의가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박경주 위원

- 모두가 있으면서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퇴장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이희경 위원

- 그렇게 얘기를 이상하게 결론지으시면 안 되죠.

○박경주 위원

- 이런 안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서 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항상 “다음 달에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잖아요. 왜냐하면 나주 워크숍을 준비하는 TF에서 이희경 위원님이나 강운주 위원님께 들은 것도 “회의 시간이 촉박해서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소위원회의 얘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희경 위원

- 6기에 비하면 지금 회의는 굉장히 토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경주 위원

- 원래 4시로 예정이 되었던 회의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에서 온라인 회의를 처음 설계할 때 의결사항은 서면의결을 하고 토의사항만 온라인 회의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무와 협의를 해 보니까 정식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쪽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정된 것이 상당히 이전일인데 그런데도 오늘 회의진행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단톡방에 “이후에 약속을 잡지 말라.”, “회의의 의결사항을 포함해서 보통 위원회 처럼 구성될 것이다.” 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단톡방을 보세요.

○이시백 위원

- 저도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된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취지와 큰 뜻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박경주 위원님은 제안자로서 이 논의가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분위기에서 다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저는 공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소위 구성이 안 되더라도 환기하는 효과는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께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 동의하세요?

○박경주 위원

- 오늘은 더 이상 논의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실무자 중에서 이야기를 보탬 문제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들 중에서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선출 감사

- 오늘 회의를 보니까 아주 진지하고 지난 위원회 때와는 다른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념들이 일반화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문화다양성, 다원예술과 우리 예술위원회의 사업들과 접목되는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문제 제기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위원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버시죠. 그리고 코로나 국면 얘기도 나오고 예산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경주 위원님이 어떤 가치를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는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해 보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박경주 위원

-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일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논의해야 될 안건은 의결해야 하는 순서 뒤에 넣어서 급박하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워크숍 TF 준비할 때도 “왜 소위원회 얘기는 제대로 할 기회가 없느냐?” 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번 기수에서 고치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처음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런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제가 제대로 얘기하기 전에 “그것은 개인 관심사잖아.”, “너만 전문가가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말을 들으면 저로서는 실망감이 드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도 박경주 위원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박경주 위원

- 위원장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저만 전문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심이라고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는 원래의 의미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회의하는 방식도 문화다양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박종관 위원장

- 당연하죠.

○박경주 위원

- 조직 안에도 문화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위를 제안하고 TF를 제안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자료 등을 다 볼 때 제가 여기 제안서에 넣었던 제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제가 있는 동안 그것을 놔두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집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진하는 것은 문화비전이나 정책을 제안한 연구소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공동제안자이신 이시백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시백 위원

- 저도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를 갖자.” 박경주 위원님은 오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나는 이게 부결될 것을 미리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맥락상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위원회가 다원 쪽 가치, 문화다양성 가치가 우리 위원회 내에서 중심 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문화다양성 소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 시도를 할 것입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위원회 안에서 의제를 뽑아내서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다른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왔고요. 어쨌든 몰랐던 분들이지만 거의 7인의 위원이 저에게 찬성한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진희 위원님은 만약 이것을 추진한다면 함께 연구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게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시도를 했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비전2030이나 새예술정책 안에서

제가 찾아낸 과제들을 계속 문예위 사업 안에 녹여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지지합니다. 당연히 그런 노력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지지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늦게까지 남아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매듭지을까 하는데 어떨까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산회를 할까 합니다.

○이시백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주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제 28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7분 회의 종료)